

서울所在大學 地方分校가 地域發展에 미치는 效果에 관한 研究

權英燮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1. 序 論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 산업, 정치, 그리고 사회기능 등 제 기능이 집중되는 문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각된지가 오래된다. 集中은 規模의 經濟라는 면에서 볼 때 效率的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國際的 機能이 서울이나 서울에 인접한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이 현 추세대로 계속될 때 서울과 首都圈은 過密로 인한 非經濟性이 더욱 커지고, 그에 따라 社會的 費用을 계속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따라 분산정책을 추진하여 왔는가 하면, 최근에는 국제적인 도시권으로 수도권을 정비해 나가야 하므로 수도권 집중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최근 마련된 第3次 國土綜合開發計劃에서는 地方分散型 國土構造의 形成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수도권집중억제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집중억제를 유도하는 정책요소 중에서 대학시설의 공간적 분산시책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향후 이러한 시책은 계속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의 지방이전이나 분교의 설립은 국가적으로는 教育部門의 中樞管理機能인 大學의 均衡的 配置를 통해 國土의 均衡있는 發展效

果를 가져오고, 수도권 측면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해당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人口分散效果를, 해당지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소비지출로 인한 經濟的 效果, 대학의 존재와 대학구성원의 각종 활동으로 社會的·文化的 效果를 발생시켜 地域發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취하여진 조치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서울소재 사립대학들이 지방에 분교를 설치하였으나, 최근의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한 人口分散效果도 매우 미흡하고(윤대식, 1983), 대학 본연의 教育, 研究, 奉仕機能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地域活性化의 手段으로 大學이 공장과 비견할만한 위치에 있어 각 자치체마다 대학을 유치하려는 붐이 일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도 大學分布의 不均衡을 是正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大學은 不均衡한 國土¹⁾를 均衡化시키는 有力한 地域開發 手段²⁾으로 인정되어 각 레지옹(region)에서는 大學을 통한 地域發展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지방에 분교를 설립한 서울소재 두 사립대학들이 실제 해당 地域發展에 어떠한 效果를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대학캠퍼스가 설립초기부터 혹은 移轉으로 서울과 지방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학본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와 학과가 겹치지 않고 다른 학과만으

*본 논문은 필자의 碩士學位論文을 요약한 것입니다. 指導教授이신 金炯國教授님께 감사드립니다.

로 이루어진 대학들이 지방캠퍼스에 있는 경우로 서울대학교의 수원캠퍼스, 성균관대학교의 수원캠퍼스, 그리고 상명여자대학교의 천안캠퍼스 등 3개 대학의 제2캠퍼스가 이 범주에 속한다.

둘째, 지방캠퍼스의 학과가 대학본부가 위치한 서울캠퍼스의 학과와重複되어 있는 경우로, 고려대 조치원분교와 연세대 원주분교를 포함한 10개 대학 지방분교가 이에 속한다.

셋째, 서울의 本校가 地方으로 移轉하고 서울 본교자리에는 대학원이나 야간학부가 남아있는 경우이다. 경기대학교, 명지대학교, 한신대학교 등 3개 대학의 제2캠퍼스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地方移轉大學」이란 서울에 소재하고 있던 4년제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교 중 서울외 地方으로 本校를 移轉한 세번째의 경우를 말하고, 「地方分校」란 본교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지방에 새로이 캠퍼스를 設置한 두번째의 경우를 말한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대학의 영향은 대단히 광범위할 것이나 본연구에 있어 人口의 效果는 분교설립으로 해당 지역에 직접 증가된 인구를 조사분석하였고, 經濟的 效果는 인적 자본 공급효과, 지역소득 증가효과, 지역고용 증가효과로 나누어 자료조사,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社會·文化的 效果, 地域社會 連繫效果는 해당 地域社會 住民의 意識, 大學利用, 大學과의 連繫 등의 문제는 주민설문조사와 대학당국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도시 성격의 신도시를 만들거나 대학등 중추관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地域發展要素로서의 大學立地

1) 大學과 地域發展과의 關係

대학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는 相互作用的인 關係로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大學의 發展이 地域의 發展에 影響을 미치는 경우이고, 둘째는 지역이 다른 제요인에 의하여 成長한 結果, 社會·文化部門에 대한 需要가 增大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이 설립된 경우, 즉 地域發展이 大學發展에 影響을 미친 경우이다.

대학이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 이후의 일이다. 논의의 경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기 위하여 타지역에서 留學은 學生들을 輸出産業으로 간주하여 연구한 경우와, 다른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國土가 不均衡한 나라들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分散政策의 수단, 地域의 次元에서는 經濟的, 教育的, 社會·文化的 發展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의 가치를 인정하여 연구한 경우이다. 한편, 최근에는 소득증대에 따른 개인의 가치지향에 부응하여 대학을 文化産業의 하나로서 간주한 연구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의 경우는 大學도 産業처럼 所得과 雇傭을 創出하는 經濟的 價値를 지닌 기관으로 지역발전을 先導하는 輸出産業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두번째의 경우는 소득과 고용증대는 물론, 지역 기업들의 인력공급수요에 부응하는 經濟的 價値와 人口增加의 側面, 地域의 이미지 제고, 地域住民의 教育熱 充足, 住民의 地域發展 意慾 副應 등의 社會文化的 側面, 대학의 연구기능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地域問題를 研究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측면, 더 나아가 대학을 기반으로 研究所 및 尖端産業을 유치하여 產學連繫를 꾀하는 등³⁾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도구로서 대학을 인정하고 있다. 또 세번째의 경우는 기술의 비약적 진보는 산업의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를 변화시켜 地域發展, 地域振興의 基本的 政策이었던 공업단지개발에 의한 기업유

치방식에서 벗어나 文化産業, 그중에서도 특히 대학을 지역발전 수단으로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大學과 地域發展과의 關係를 바탕으로 서울소재대학의 地方分校가 地域發展에 미치는 효과를 크게 人口的 效果, 經濟的 效果, 社會·文化的 效果, 地域社會連繫效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2) 大學이 地域發展에 미치는 效果

(1) 人口的 效果

대학의 설립은 人口的 側面에서는 지역발전의 한 요인인 人口의 增加效果를 가져온다. 즉, 대학은 고도의 도시기능, 우수한 교육문화시설,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연령층의 정착과 타지역주민의 유입, 그 지역출신자의 歸郷 또는 轉入을 誘導하는 效果를 가져오게 된다. 그럼으로써 均衡있는 人口構造를 형성하게 되고, 젊은이의 활력이 都市의 活性化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각세대 각층에 반영되어 외부로부터 사람을 吸引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2) 經濟的 效果

대학이 지역사회에 주는 경제적 효과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인적자본공급효과(인재육성효과), 지역소득 증가효과, 지역고용 증가효과로 나눌 수 있다.

① 人的資本 供給效果

경제적 측면에서 인적자본공급효과 또는 인재육성효과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교육받은 人的資本을 供給하여 地域經濟發展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즉, 대학은 지역에 고급인력과 숙련기술자를 양성, 공급하여 생산성과 지역소득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배출한 졸업생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게 되며, 그것이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 안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여 지역산업의 특화와 발전에 기여하며, 다른 지역의 다른 산업에 대한 比較

優位性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자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교육받은 인력의 수가 많아 안정적 공급전망이 서면 企業이 立地選好를 가짐으로써 산업입지를 유인하게 되며 산업구조는 고도화되고 地域의 魅力은 增加하며 이는 外部地域으로부터 자금과 노동력을 흡수하는 輸出産業(export industry)의 效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② 地域所得 增加效果

대학으로 인한 地域所得 增加效果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학을 中樞管理機能을 가진 中樞管理機關으로 보고 중추관리기관이 지역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들의 소비가 地域生産, 附加價値 및 所得에 주는 經濟的 波及效果를 測定하는 접근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학을 지역내에서의 성장거점으로 보고 성장거점지역이 그 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效果를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前者의 경우를 부인하면, 대학은 종사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며, 이는 가계소비지출과 업무소비지출을 통하여 지역내의 재화 및 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킨다. 이러한 수요증대는 관련부문의 生産活動을 誘發하고 동시에 附加價値를 創出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문의 취업자들은 새로운 임금소득을 얻게 되고 이들은 다시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後者の 경우는 工場立地에 따른 地域所得 創出效果를 연구한 Daranee의 연구를 大學에 適用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aranee는 공장인건비 지출이 해당지역에 투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直接所得效果(Y_1), 원료 및 기타부문의 지출로 인해 해당지역에 발생하는 間接所得效果(Y_2), 그리고 직접소득효과와 간접소득효과에 의해 해당지역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誘發所得效果(Y_3)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大學을 教育部門의 中樞管理機關으로 보고, 중추관리기관의 소비지출

이 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 즉, 임금지불과 업무소비지출은 물론 대학으로 인하여 지역에서 소비를 발생시키게 되는 학생, 교육비를 절약하게된 住民의 機會費用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1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③ 地域雇傭 增加效果

대학을 經濟的, 社會·文化的 革新을 가져오는 성장거점지역으로 보면 고용측면에서 해당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直接雇傭은 대학설립시 필요한 建設人力과 大學敎職員의 雇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건설인력의 고용은 단기적인 것이므로 본 연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間接雇傭은 이러한 직접고용과 관련된 새로운 활동의 증가로 나타나는 2차적인 雇傭을 말한다. 즉, 대학교직원과 학생들의 활동에 필요한 실험기구 및 각종 소비재 등 물품 구입과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교직원의 가계 부문 소비지출의 수요충족을 위한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이다.

(3) 社會·文化的 效果

대학은 有機體로서 사회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만 生命力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대학은 하나의 조직체로서 역사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역사와 사회를 향하여 그 본질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 서울소재대학의 지방캠퍼스는 해당지역에 각종의 社會·文化的 效果를 파급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地域住民의 自負心과 矜持 제고, 地域의 傳統文化 발전·전수, 지역주민의 教育機會 擴大, 地域의 매력과 이미지 증대, 地域發展의 先導者的 役割 등 현재는 물론 장래에 대한 期待效果를 파급시킨다.

이렇듯 社會·文化的 效果는 만질 수도 없고,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도 않으며 心理的인 側面을 많이 가지고 있어 個人의 主觀的 意識을 통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채

택되고 있다.

(4) 地域社會連繫 效果

地域社會連繫側面에서 대학구성원은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과 관계를 맺고, 지역의 당면문제를 研究하고 주민의 關心을 자극하며, 지역내 기업체나 공공관청과 공동연구, 자문활동으로 교류하는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地域社會連繫效果란 대학구성원의 각종 봉사활동이나 자문활동, 정보교환, 기술지도, 기술교류 등을 통한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相互作用의 關係를 말한다. 이러한 相互作用의 관계는 각종 奉仕活動을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대학의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등 학술행사와 연극, 문학, 음악 등 공연 등에서의 교류·접촉, 대학이 가진 各種 施設 제공을 통한 교류, 지역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등에서의 관계이다.

이 이외에도 녹지대의 훼손, 농경지의 감소(Jean-Marie Lechat, 1979) 등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3. 事例分析

1) 事例地域의 現況

(1) 일반현황

고려대 조치원분교가 위치한 연기군은 충청남도의 중앙동단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140 km 떨어져 있다. 조치원은 경부선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충북선의 기점이고, 陸路로서도 청주와 통하는 國道가 경부고속도로에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1990년 말 현재, 인구는 연기군이 90,386人, 조치원읍이 34,111人이다. 인구증가율은 1971년을 기준으로 연기군이 연평균 0.54% 감소해 온 반면, 조치원읍은 연평균 1.2%로 증가해왔다.

연세대 원주분교가 위치한 원주군은 강원도의 西南方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108.2km(고속도로로 12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 11월 1일 현재, 인구는 원주시가 173,013人, 원주군이 52,161人이다. 인구증가율은 1971년을 기준으로 원주시는 연평균 2.6%씩 증가한 반면, 원주군은 2.1%씩 감소해 왔다. 그러나 원주군의 경우 1981년부터는 연평균 1.46%로 감소율이 둔화되었다.

(2) 地方分校 地域住民의 人口의 特性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선정된 두 지방분교에서 가까운 남여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이다. 따라서 이들의 거주지역은 고려대 조치원 분교의 경우 조치원읍, 연기군이 89.7%이다. 연세대 원주 분교의 경우는 원주시 79.2%, 원주군 14.3%이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최종학력은 고려대 조치원분교 지역주민의 경우 55.4%, 연세대 원주분교 지역주민의 경우 39.3%가 중졸이하이고, 직업은 고려대 조치원분교 지역주민의 경우 29.7%가 농업, 21.9%가 근로자 및 회사원, 20.0%가 상업 및 서비스업이다. 연세대 원주분교 지역주민의 경우는 25.3%가 상업, 21.5%가 근로자 및 회사원, 16.4%가 농업이다. 또한 고려대 조치원분교 지역주민의 17.3%, 연세대 원주분교 지역주민의 24.2%가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다.

2) 事例對象 地方分校의 選定 및 現況

사례대상지역으로는 設立年度, 空間的 立地, 사람들의 認識, 設立規模 등을 고려하여 고려대 조치원분교와 연세대 원주분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대학이 지방으로 移轉되거나 분교가 設立된 뒤 상당한 期間이 지나 地域에 미치는 影響이 비교적 크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 둘째, 수도권의 영향을 적게 받는 非首都圈 地域일 것, 셋째,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名門大學일 것, 넷째, 설립규모(학생수)가 비슷할 것 등을 고려하였다.

1980년 설치된 고려대학교 조치원분교는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12만여평의 대지 위에 건평이 13,580평으로, 1991년 말 현재 5개 단과대학에 23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원주분교는 1977년 12월에 의과대학 원주분교가 원주시 일산동에 설치되었고, 1981년에 원주대학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인문·사회·자연과학부가 원주군 흥업면 매지리에 설치되었다. 양 캠퍼스 합하여 593,251평의 대지 위에 건평이 26,487평으로 1991년 말 현재, 4개 단과대학에 23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두 지방분교의 위치와 현황은 그림 1, 표 1과 같다.

3) 지방분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인구적 효과분석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분교 설립으로 이동 및 유발된 인구분석은 교직원에 의한 인구증가효과와 학생에 의한 인구증가효과, 그리고 주민에 의한 인구증가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研究의 範圍를 敎職員과 學生에 의한 人口增加效果만으로 한정하였다.

① 교직원에 의한 인구증가효과

1991년 말 현재 조사된 고대 조치원 분교의 경우는 전체교직원 269명중 대학소재 지역에 7.0%, 수도권 지역에 31.6%, 대전·충남에 25.3%, 기타 시도에 36.1%가 거주하고 있다. 교수를 제외한 직종 직원들의 대부분이 대전·충남, 혹은 기타시도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敎授의 경우는 81%가 首都圈 地域에 居住하고 있다.

반면 연세대 원주분교의 경우는 전체 교직원 1,394명중 大學所在地域에 居住하는 敎職員은 1,291명으로 92.6%이다. 특히 교수들의 대학소재지 거주비율은 전체 175명중 101명으로 57.7%에 해당되어, 교직원 전체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서울에서 비슷한 거리의 타대학(건대 충주분교 교수들의 경우 대학소재지역 거주비율 2.8%, 단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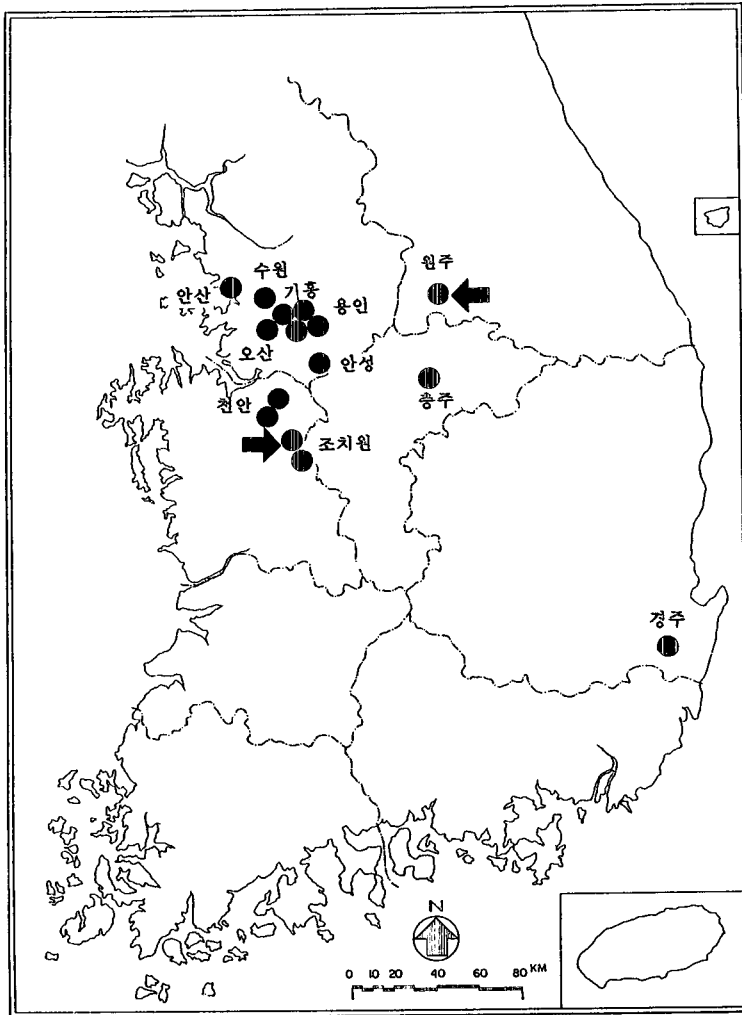


그림 1. 地方移轉大學 및 分校設立大學의 地域別 分布

표 1. 두 사례대학의 학생수 및 학과수

(단위: 人, 個)

구 분	분 교	설립연도	학 생 수						학 과		단과대학 (1991)
			설립당시	1981	1984	1988	1991	계	중복	별개	
고려대	조치원	1980	400	760	760	920	1100	23	15	8	5
연세대	원 주	1978	40	510	690	850	1060	23	13	8	4

자료: 김수일, "서울지역소재 대학교의 지방대학캠퍼스 현황과 전망," 「연세논총」, 제24집, 1987, p.126에서 추가. 1991년 자료는 「'92 전국대학진학자료편람」, 대학조사자료 종합.

표 2. 지방캠퍼스 교직원의 거주지 분포

(단위: 人)

구 분	직 책	수도권	대학소재 지역	대학소재 도	기타 도시	계
고려대 조치원 분 교	교 수	61	·	7	7	75
	행정직원	12	7	17	52	88
	조 교	12	·	28	29	69
	기 타	·	12	16	9	37
계		85	19	68	97	269
연세대 원 주 분 교	교 수	72	101	·	2	175
	행정직원	4	207	·	2	213
	조 교	2	20	·	·	22
	기 타	·	963	21	·	984
계		78	1,291	21	4	1,394

註: 고려대 조치원 분교의 경우 大學所在地域은 조치원과 연기군을 말하고, 大學所在道는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를 말한다.

연세대 원주 분교의 경우 大學所在地域은 原州市와 原州郡을 말하고, 大學所在道는 江原道를 말한다.

資料: 대학교직원 거주현황 조사자료

천안분교 교수의 경우 대학소재지역 거주비율 26.9%)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위에서 살펴본 교직원의 경우 거주지 현황을 바탕으로 두지역을 비교하면 서울에서 교통이 불편할수록, 또한 읍급지역 보다는 시급지역일수록 교직원의 대학소재지역 거주비율이 높다. 조치원의 낮은 거주비율은 大學所在地域이 邑級, 郡單位 地域이고, 둘째, 인근에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 大都市 및 中小都市가 존재하며, 셋째, 경부선 회랑에 있어 서울이나 청주, 대전 등 대도시는 물론 인근의 충북, 전북, 경북과도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통근·통학 할 수 있어 交通이 便利한 地域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연세대 원주분교의 경우 교직원의 대학소재지역 거주비율이 상당히 높는데, 그 이유는 첫째, 大學所在地域이 市級地域이고, 둘째, 인근에는 원주시 보다 규모가 큰 도시가 없으며, 셋째, 주변 타시도와 교통도 그다지 편리하지 않고, 넷째, 雇傭規模가 큰 病院이 구성원의 직무 특성상 職住近接을 요하는 職種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② 학생에 의한 인구증가 효과

지방분교의 설립은 교직원 이외에도 학생 및 그에 따른 인구의 증가효과를 가져온다. 즉, 지역내 학생의 유출방지 및 지역의 학생의 유입, 유발인구에 의해서이다.

학생들의 출신지역별(출신고등학교 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고려대의 경우 大學所在地域 出身比率이 7.6%로 상당히 낮은 반면, 수도권 학생 비율이 62.7%, 기타 市道地域의 학생이 29.7%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 연세대 원주분교의 경우는 대학소재지역 출신학생이 원주 시·군만도 14.1%나 차지하고(강원도 전체를 보면 16.2%), 수도권지역 출신학생은 고려대보다도 10%나 높은 72.7%인데 그외의 시도 출신학생은 11%로, 고려대의 29.7%보다 상당히 낮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지역내 인구증가 효과는 조치원지역보다는 원주지역에서 좀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일수록 수도권 거주지향이 강하고, 대학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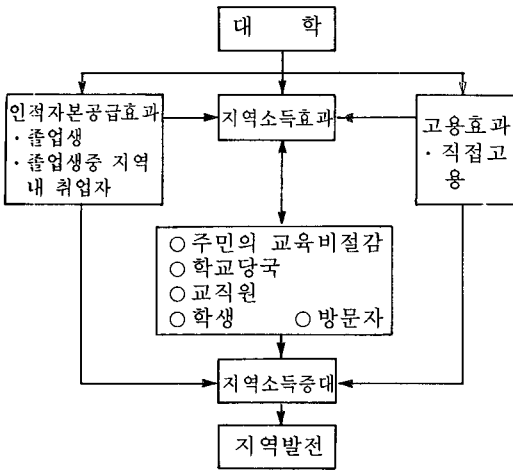


그림 2. 大學의 經濟的 效果 分析模型

지역이 시급지역일수록 교수의 거주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2) 經濟的 效果分析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廣範圍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는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가장 실증적이고,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지역발전 효과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크게 人的資本供給效果, 地域所得增加效果, 地域雇傭增加效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모형화하면 그림 2와 같다.

① 인적자본 공급효과

교육받은 인적자본은 지역의 人力供給의 質的 構造를 變化시키고, 知識을 生産·擴散시키며 生産性を 向上시키고 地域에 産業을 誘致·成長시키는데 기여한다.

고려대 조치원분교의 경우 대학설립 이래 배출한 졸업생은 4,700여명이다. 이중 조치원 및 연기군에 취업한 졸업생은 전체졸업생의 1.1%에 불과하다. 연세대 원주분교의 경우는 졸업생수 4,100여명이고, 대학소재 지역 취업자는 연세대 일산캠퍼스의 경우

1992년도 졸업생 73명중 52명인 71.2%가 지역내 취업을 하였다.

고려대 조치원 분교의 경우 대학설립 이래 50여명만이 연기군내에 취업하였다. 연세대 원주분교의 경우도 지역내 부속병원 이외에 다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를 살펴볼 수 없었다. 이 두 경우 모두 分校의 設立으로 인한 人的 移動만 있었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제조업이나, 고용규모가 큰 기관들의 이전 같은 시설투자등의 物的 移動, 資本 移動은 뒤따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② 地域所得 增加效果

서울소재대학 지방분교가 지역의 소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기업의 입지나 연구소의 입지가 지역소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측정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의 입지가 지역소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경제기반모형, 성장거점의 소득창출모형, 지역투입-산출모형, 기타 계량경제 모형 등을 이용하여 측정되고 있다.

大學의 經濟的 效果測定에서도 이 방법들이 응용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응용된 방법은 대학을 성장거점으로 보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방법이다. 이것은 Daranee의 모형을 대학에 적용한 것으로 류은수(1985), 임승달(1989) 등이 이 방법으로 경제적 소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또, 안경식(1988)은 경제기반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소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대학을 教育部門의 中樞管理機關으로 보고 중추관리기관의 소비가 地域生産, 附加價値 및 所得에 주는 經濟的 波及效果를 분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교설립 대학의 총지출액중 大學所在地域 居住 教職員의 俸給(賃金)으로 支出되는 金額과 非居住 教職員의 大學所在地域 支出 金額, 地域住民의 學費負擔 輕減額, 學校運營費, 學生의 消費支出 등이 대학소재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측정하였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Y = 8V_b \cdot H \cdot B + X + 12 \sum_{i=1}^4 J_i \cdot O_i \\ + 8 \sum_{k=1}^4 J_k \cdot Z_k + 12H \cdot U \\ + 8(U+T)P + 8N \cdot W$$

단, H: 자가학생수

B: 서울지역 월 평균 하숙비

V_b : 하숙비의 부가가치율

X: 인건비를 제외한 대학당국의 연간 지출액

i: 대학소재지역 거주교직원의 직책수

J_i : 직책별 대학소재지역 거주교직원 수

O_i : 직책별 대학소재지역 거주교직원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

k: 대학소재지역 비거주교직원의 직책수

J_k : 직책별 대학소재지역 비거주교직원 수

Z_k : 직책별 대학소재지역 비거주교직원의 1인당 월평균 대학소재지역지출액

U: 학생 1인당 월평균 용돈

T: 대학소재지역 월평균 하숙비

P: 기숙사, 하숙, 자취 학생수

W: 학생 1인당 월평균 대학소재지역 지출액

N: 대학소재지역거주 기타 분류 학생 및 대학소재지역비거주 학생의 월평균 대학소재지역지출액

가. 주민에 의한 경우

서울소재대학의 지방분교가 입지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학비부담경감액은 자녀들이 타지역(특히 서울)으로 진학하였을 경우 특별히 추가되는 비용인 하숙비(또는 자취비) 정도인데, 자녀들의 하숙비(편의상 거주형태를 하숙으로 통일)를 지방분교의 설치로 인하여 지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만큼 주민들은 지출(학비부담)이 경

감된 셈이다. 하숙비내의 부가가치율 제외하고 하숙기간을 연중 8개월로 할 때, 지역 주민 교육비절감액은 연기군 지역이 연간 364,320천원, 원주지역이 연간 625,968천원으로 추정된다.

나. 교직원에 의한 경우

교직원에 의한 지출에서는 대학소재지역 교직원은 월평균급여액 모두가 대학소재지역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책별 교직원수에 월평균 급여액을 곱하고 다시 12를 곱하여 大學所在地域에서의 年刊 支出額을 구하였다. 또, 대학소재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교직원의 경우는 대학소재지역에서의 대체적인 월평균 지출금액을 구하여 각각 해당 직원수에 곱하고 다시 8을 곱하여 대학소재지역에서의 연간 지출금액을 구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고려대 조치원분교의 경우 대학소재지역인 연기군에 발생시키는 소비는 연간 7억 2천만원 정도이고, 연세대 원주분교의 경우는 원주지역에 연간 221억원 정도의 소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학교당국에 의한 업무경비지출

고려대 조치원 분교의 경우 매년 예산은 本校와 구분없이 統合的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데, 1991년 연간 지출액 2,959,754만원 중 조치원분교 지출액은 324,506만원이고 이중 업무경비는 101,281만원으로 추정된다. 연세대 원주분교의 경우는 예산의 自立 運營權을 갖고 있는데, 1991년 연간업무경비는 연간 3,028,946만원으로 추정된다.

라. 학생에 의한 경우

학생에 의한 지출에서는 自家學生은 월평균 용돈, 통학자 및 기타학생의 경우는 월평균 용돈 중 大學所在地域 月平均 支出額, 기숙사·하숙·자취학생은 하숙비 및 용돈을 대학소재지역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거주형태에 따른 학생수와 1인당 월평균 대학소재지역 지출액과 각각 곱하여 학생의 대학소재지역 지출총액을 구한 후 여기에 자

표 3. 大學所在地域 居住 敎職員에 의한 所得效果

(단위: 人, 만원)

구 분	직 책	직원수	직원 1인당 월평균 대학소재지역 지출금액	직원의 월평균 대학소재지역 지출금액	연평균 대학소재 지역지출총액
고려대 조치원 분 교	교 수	—	—	—	—
	행정직원	7	91	637	7,644
	조 교	—	—	—	—
	기 타	12	60	720	8,640
	계	19	—	1,357	16,284
연세대 원 주 분 교	교 수	101	160	16,160	193,920
	행정직원	207	91	18,837	226,044
	조 교	20	70	1,400	16,800
	기 타	963	150	144,450	1,733,400
	계	1,291	—	180,847	2,170,164
총 계		1,310	—	182,204	2,186,448

자료: 국토개발연구원이 실시한 「수도권정책 대안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중 지방이전대학 및 지방캠퍼스 교직원부문의 설문내용을 통계처리하여 얻은 결과와 부분적으로는 대학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家 學生은 12, 나머지 학생은 8을 곱하여 대학소재지역 연평균 지출총액을 구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고려대 조치원분교의 경우 地域所得增加에 가장 크게 寄與한 主體는 學生(79.1%)이고, 연세대 원주분교의 경우는 學校當局(48.4%), 敎職員(35.3%), 學生(15.3%) 順이다. 두 사례에서 地域所得額의 差異는 첫째, 施設規模의 差異가 크게 작용했다. 연세대의 경우 病院으로 인한 地域所得發生額은 약 369억원으로 이것은 전체 지역소득액에서 59.0%를 차지한다. 둘째, 敎職員數 및 敎職員의 大學所在地域 居住가 크게 작용했다. 셋째, 주민절감액에서의 차이는 대학소재지역 출신학생수가 연세대 원주분교가 고려대 조치원분교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났다.

③ 地域住民 雇傭效果

대학의 분교설립으로 그 지역출신의 고용

창출을 성별, 직책별로 보면, 고대 조치원분교의 경우 연기군내 지역고용자는 고용원과 기타 직원으로 남자 25명, 여자 20명에 불과하다. 연대의 경우는 원주시 및 원주군 지역 주민이 교수 8명, 직원 174명, 고용원 105명, 기타 144명이다. 한편 강원도 지역 주민은 교수 12명, 직원 131명, 고용원 96명, 기타 106명에 달한다.

대학소재지역 주민은 전체 교직원중 고려대 조치원분교는 45명인 16.7%, 연세대 원주분교는 431명인 30.9%로, 이를 직책별로 보면 고려대 조치원 분교의 경우 고용된 주민의 100%가 하위직이고, 연세대 원주 분교의 경우는 24.4%가 하위직이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대학의 지역소득발생효과는 매우 큰 편이며, 대학 부속시설규모에 따라 소득발생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기타 지역내 인적자본공급효과, 지역주민고용효과는 미미하다.

표 4. 학생의 대학소재지역 지출총액

(단위: 人, 만원)

대 학 구 분	거 주 형 태	학생수	1인당 월평균 대학소재지역 지출액	월평균 대학 소재지역 지출총액	연평균 대학 소재지역 지출총액	
고려대 조치원 분 교	자 가	250	18	4,500	54,000	
	대학소재 지역거주자	기 숙 사	550	30	16,500	132,000
		하숙·자취	1,500	30	45,000	360,000
	기 타	413	15	6,195	49,560	
	대학소재지 비거주자	1,650	15	24,750	198,000	
	계	4,363	-	96,945	793,560	
연세대 원주 분 교	자 가	567	22	12,474	149,688	
	대학소재 지역거주자	기 숙 사	1,253	32	40,096	320,768
		하숙·자취	1,559	32	49,888	399,104
	기 타	245	17	4,165	33,320	
	대학소재지 비거주자	349	17	6,693	53,544	
	계	4,018	-	113,321	956,424	

註: ① 대학소재지역 출신자는 自家로 간주한다.

② 전체인원중 기숙사는 수용인원 만큼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③ 자가와 기숙사, 통학자를 뺀 인원을 하숙, 자취인원으로 본다.

④ 각 해당지역 하숙비는 2인 1실 기준 최저 13만원에서 최고 17만원인바 평균 15만원으로 계산하였다.

資料: 국토개발연구원이 실시한 「수도권정책 대안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중 지방이전대학 및 지방캠퍼스 학생부문의 설문내용을 통계처리하여 얻은 결과와 해당지역 평균 하숙비를 조사하여 작성함.

(3) 社會·文化的 效果分析

지방분교가 지역사회에 社會·文化的 側面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存在價値를 인정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지방분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분교가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응답이 고려대 조치원 분교 지역주민의 경우 48.7%, 연세대 원주 분교 지역주민의 경우 48.5%였다. 또, 비교적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40.5%, 46.1%

로,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9.2%, 94.6%로 지방분교의 존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방분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분야에 대한 응답은 1순위가 두 지역 모두 教育으로, 고려대 조치원 분교 지역주민의 경우 55.1%, 연세대 원주 분교 지역주민의 경우 57.7%였다. 또, 2순위는 社會·文化 部門으로 각각 16.0%, 15.0%로, 地方分校는 教育, 社會·文化分野에서 특히 寄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총지역소득효과와 구성비

(단위: 만원, %)

구 분	소 득 발 생 주 체		총지역소득액	구성비
고려대 조치원 분 교	주민절감액		36,432	3.6
	교직원	대학소재지역거주 교직원	16,284	1.6
		대학소재지역비거주 교직원	56,000	5.6
	학교당국 지출액		101,281	10.1
	학생지출액		793,560	79.1
	계		1,003,557	100.0
연세대 원 주 분 교	주민절감액		62,597	1.0
	교직원	대학소재지역거주 교직원	2,170,164	34.7
		대학소재지역비거주 교직원	39,280	0.6
	학교당국 지출액		3,028,946	48.4
	학생지출액		956,424	15.3
	계		6,257,441	100.0

표 6. 지역주민의 고용

(단위: 人)

구 분	성 별	교 수	직 원	고 용 원	기 타	계
고려대 조치원분교	남	-	-	25	-	25
	여	-	-	-	20	20
연세대 원주분교	남	6	61	24	48	139
	여	2	113	81	96	292

지방분교에 기대하는 역할로는 地方學生 優待의 教育的 役割이라는 응답자가 고려대 조치원 분교 지역주민의 경우 60.8%, 연세대 원주 분교 지역주민의 경우 57.7%였다. 또, 先導的 役割을 기대하는 응답자는 각각 23.2%, 21.8%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남·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들이다. 지방분교에 자

녀를 보내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봐서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고려대 조치원 분교 지역주민의 경우 57.0%, 연세대 원주 분교 지역주민의 경우 55.6%였다. 또, 지방분교에 보내겠다는 학부모도 각각 27.8%, 23.6%로 높은 편이다. 지방분교에 보내겠다는 응답에는 남·여학생 부모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地方分校의 地域社會 存在의 必要性

(단위: 人, %)

구 분	고려대 조치원분교	연세대 원주분교	계
무응답	3 (0.81)	1 (0.34)	4 (0.6)
반드시 필요	180 (48.65)	142 (48.46)	322 (48.5)
비교적 필요	150 (40.54)	135 (46.08)	285 (43.0)
필요하지 않음	12 (3.24)	13 (4.44)	25 (3.8)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25 (6.76)	2 (0.68)	27 (4.1)
계	370(100.00)	293(100.00)	663(100.0)

대학의 설립으로 좋아진 사항을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한 결과, 두 지역주민 모두 첫번째로 새로운 住宅地가 開發되고 住居環境이 改善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두번째로 地域住民의 自負心과 矜持를 높이는 데 寄與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대학의 설립으로 나빠진 사항은 고려대 조치원분교 지역주민은 오락시설이 늘었다, 소비풍조가 만연하였다, 외부인이 많아져 愛郷心과 共同體 意識이 低下되었다라는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연세대 원주분교 지역주민은 소비풍조가 만연하였다, 오락시설이 늘었다, 대학생들이 무분별한 행동을 보인다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은 교육, 사회·문화적 기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귀중한 존재가 되고 있다.

(4) 地域사회연계 효과분석

지방분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 存在價値를 인정받아야 함은 물론 지역사회내의 여러 기관, 기업체, 주민과 밀접한 關係를 맺을 필요가 있다. 즉, 大學과 地域社會와의 人的, 物的 相互交流가 必要하다. 따라서 지방분교와 주민과의 관계, 나아가 지역내 산업체, 기관들과의 교류관계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지방분교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으로는 고려대 조치원분교 지역주민이 教育 奉仕, 努力奉仕, 醫療奉仕의 順이고, 연세대 원주분교 지역주민의 경우는 教育, 醫療, 努力奉仕의 順으로 조치원 지역보다 의료봉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분교의 시설은 이용한 적이 있는 주민이 조치원분교의 경우 42.4%, 원주분교의 경

표 8. 고려대 조치원 분교의 연구소 현황

(1990년말 현재)

구 분	한국학연구소	산업개발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설립연도	1986. 11	1986. 11	1990. 5
기 구	1개 연구실	5개 연구실	5개 연구실
연구원	18명(전임교수 1, 겸임교수 17)	19명(겸임교수)	62명(겸임교수 28, 연구조교 34)
논문집	3권	2권	
논문편수	21편	11편	
학술행사	3회	2회	
연구비(1990년)	6,031,800원	9,010,000원	7,842,960원

우 64.1%로 드물게나마 대학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대학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민은 각각 33명 8.9%, 22명 7.5%에 불과하다.

대학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와 그 해결에 가장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관은 大學附設 研究所이다. 따라서 地域研究活動, 産學連繫活動을 大學附設研究所의 活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고려대 조치원분교의 경우 3개의 연구소를 설치하여 大德研究團地 및 淸州 등 隣近 工業團地들과 連繫한 産·研·學協同體制를 形成하고 있으며, 총 99명의 연구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 원주분교의 경우 부설연구소는 총 6개이나 대부분 전용시설이나 전임연구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産學協同은 職業醫學研究所의 탄광부 진폐증 문제를 포함하는 地域的 産業災害問題에 대한 研究등 地域問題研究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연구소는 1990년-1991년간 13건의 연구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地方分校와 地域內 機關과의 交流는 고려대 조치원분교의 경우 경영정보대학원을 설치하여 地域社會人士들의 教育·紐帶關係를 形成하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는 관리과학대학원의 고위관리자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연세대 일산캠퍼스 및 부속병원의 경우 의료관련 및 일반행정관련 교류건수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관계는 아직 이용, 참여, 봉사, 지역연구, 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만큼 활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4. 結論

본 연구는 서울의 人口分散 및 地方人口 誘入抑制 政策의 일환으로 설치된 地方分校

의 地域發展效果를 人口的, 經濟的, 社會·文化的 效果, 地域社會連繫效果 側面에서 測定·比較·分析하는 方法으로 接近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首都圈 人口分散效果와 地域發展效果를 동시에 피하고, 균형있는 국토공간정책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몇가지 결론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첫째, 대학의 이전·분교설립을 통한 首都圈 人口分散·地域內 人口增加 效果를 피하기 위해서는 大學의 立地地域이 적정해야 한다. 즉, 정책의 초기에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대학의 입지지역이 住居施設, 生活環境施設, 教育施設, 文化施設 등이 고급인력의 요구수준에 맞는 적어도 市級 以上の 地域이어야 한다. 또한 통근·통학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한편 郡單位 地域일 경우는 大學의 地域發展效果에의 寄與는 市級地域보다 클 수 있다. 그러나 각종 투자가 미비될 경우 대학발전과 지역발전이 둘다 뒤지게 된다.

둘째, 대학으로 인한 消費支出이 地域經濟에 미치는 效果는 지대하다. 실제로 두 사례의 지방분교는 소득발생측면에서는 어떤 제조업, 서비스업보다 큰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지출액의 地域內 消費를 誘導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내 關聯産業의 育成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教育받은 人的資本이 流出되지 않도록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대학이 自體推進의 成長産業으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납금에 의한 수입에서 벗어나 研究活動으로 인한 수입을 피하여야 하고, 質的 改善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大學의 優秀性이 産學連繫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사회주민의 대학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고, 大學存在의 必要性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기대는 지대하여 대학이 커다란 社會文化的 效果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대부분 間接的, 抽象的, 心理的인 것이다.

즉, 뚜렷하게 대학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대학행사에 참여, 연구, 교류하는 측면에서 대학으로 인한 直接的 便益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地域社會와 大學과의 더욱 緊密한 連繫가 필요하다.

大學이 經濟的 要所, 人的 要所, 教育 프로그램의 投入과 각종 기능을 통한 變換으로 각종 效果를 波及시키는 바, 投入에서부터 變換의 過程이 훌륭하여야 產出의 效果가 큰 것은 當然하다. 지방분교의 지역발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대학당국의 노력, 대학인의 노력은 물론 지역주민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人口移動政策에는 物的 移動, 資本 移動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가지 분석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인구적 효과, 경제적 효과의 경우 1차적으로 증가된 인구, 1차적으로 발생한 소득, 고용만을 측정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회·문화적 효과, 지역사회연계효과의 경우 다양한 측정방법이 있을 터인데, 住民의 意識 및 利用, 參與 등 態度를 통한 分析과 단편적인 자료조사만으로 한정된 점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註

- 1) 프랑스의 불균형한 국토를 일찌기 그라비에르(J. F. Gravier)는 "파리와 프랑스 사막"이라 표현하였다(Gravier, J. F. 1972. Paris et Le Desert Français en 1972; Paris, Flammarion).
- 2) 예전에는 軍部隊, 工場, 事務室, 尖端科學研究團地가 있다는 사실이 地域의 發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大學이 그와 같은 地域發展의 중대한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도 大學과 國土-地域發展과의 相關關係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Fremont, Armond. 1990-1991. L'aménagement du territoire universitaire. L'espace géographique, tome XIX-XX 3: 193-202.).
- 3) 벨기에의 루팡대학은 1968년 브뤼셀 근교로 확대·이전하면서 대학을 중핵으로 부속연구기관, 기업의 연구소, 연구원 사택, 상업, 사회·문화

시설까지도 갖춘 대학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이 도시에는 대학연구원을 비롯하여 11,000명이 거주하고 실제 활동 인구는 22,000명에 이른다. 하이테크 관련 외국기업이 36個社가 진출하고 있고, 1,000여건에 달하는 외부기업과의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1983-1984년간 40여건에 달하는 對 企業技術移轉을 하고 있다. 2000년까지 인구 50,000人을 계획하고 있고, 생명공학, 화학연구시설부터 생활하수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폐수처리 되도록 환경오염방지시설까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山本 秀一, 1989. 2, "벨기에의 사이언스파크와 地域開發行政," 「地域開發」, 293, pp. 45-46).

참고문헌

- 김수일, 1987, "서울지역소재 대학교의 지방대학캠퍼스 현황과 전망," 「연세논총」, 24, pp. 117-154.
- 김진호, 1988. 9, "地方分校에 대한 地域住民의 意識(4)," 「대학교육」, 37.
- 류은수, 1985, 「地方移轉大學의 地域發展效果에 관한 研究」,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식, 1988, "地方分校가 地域經濟에 미치는 影響," 「대학교육」, 36.
- 윤대식, 1983, "대학시설의 지방이전에 따른 주거이전형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18(2), pp. 38-52.
- 임승달, 1989,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국토계획」, 24(1).
- 永地正直, 1980. 4, "地方의 時代と 大學," 「都市問題」, 71(4), pp. 14-26.
- 高橋良宣, 1980. 4, "大學にあける 地域 都市研究の 現狀と 課題," 「都市問題」, 71(4), pp. 40-49.
- 阿部一祐, 1987, "大學誘致と 都市の 活性化," 「都市問題研究」, 39(9).
- Allesch, Juergen, 1987, "Providing Planning Support for New Tenant Companies: The Role of the University and Strategies of Reg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11(3), pp. 321-370.
- Lechat, Jean-Marie, 1979, "University Influence on Regional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14(3), pp. 239-250.
- Neave, Guy, 1979, "Edu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14(3), pp. 207-231.
- Neave, Guy, 1979, "Higher Edu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Higher Education Review*, 11(3), pp.10-26.

- Peters, Kathrin, 1990, "Universitie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 *Innov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by Hans-Juergen Ewers & Juergen Allesch, Walter de Gruyter, 1990.
- Smith, H. Lawton, 1991, "Industry-Academic Links: The Case of Oxford University,"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9.
- Strang, William A, 1971, *The University and the Local Economy: A Study of the Economic Interaction Betwee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and the Dane County Economy*, The University of Wisconsin.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Local Campuses of University at Seoul on Regional Development

Young Sub Kw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This paper analyzes: (1) the effects of the population growth in the regions in which the campuses are

located (2) the economic effects (3) the social and cultural effects (4) the linkage effects between university and regional community.

It is found that the campuses have various effects on the regional community through the human capitals,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and educational program. In particular local campuses have substantial impacts on regional economy. Two local campuses have been found to have more regional income effects tha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do. Thus, it is necessary that the growth of linkage mechanism with universities and induced consumption expenditure by universities should be constructed in the region having local campuses.

In order to increase these effects on regional development, much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regional development aspect from university authorities, students, professors, and residents. Also from the national policy point of view, the population mobility policy associated with material-moving policy and capital mobility policy in relation to the universities should be established.